



개막작 '인도의 딸: 그날 버스에서 있었던 일'



영화 '거짓말'의 주연배우 김꽃비

당신의 이야기, 영화로 만들어 드립니다

11~15일 제6회 광주여성영화제 - 10개국 장·단편 40편 상영

'당신의 이야기가 영화가 된다면?'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광주여성영화제가 관객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주최측이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건 영화 상영이 끝난 후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할 때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이들이 많아서다. 어떤 이는 감독을 붙잡고 고민을 털어놓고, 어떤 이는 화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들이 이야기는 어떤 편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평범한 일상에서 발견한 소소한 기쁨, 눈물겹도록 진한 관객들의 삶의 이야기는 시나리오로 각색, 지역 영화인들이 스텝으로 참여해 영화로 제작한 후 내년 영화제에서 상영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14일까지 이메일(wffig@hanmail.net)로 응모하면 된다.

올해 광주여성영화제는 11일부터 15일까지 광주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에서 열린다. 영화제 주제는 '꽃은, 핀다'로 40여편의 장·단편 영화가 상영된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꽃'이라는 '희망'이 피어날길 기대한다는 의미를 담은 주제다.

개막작은 '인도의 딸: 그날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다. 인도 델리의 시내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여대생이 잔인하게 성폭행 당하고 목숨까지

관객 이야기 영화 제작 프로젝트

14일까지 접수...내년 영화제 상영

'인도의 딸' '이다' 등 무료 관람

임흥순 감독·김꽃비 관객과 대화

많은 사건과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저항시위를 담은 작품이다. 폐막작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미디어팀이 만든 '바다에서 온 편지'로 영화 상영 후 세월호 유가족과 감독을 초청해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칸느 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 부분에 초청된 신수원 감독의 '마돈나', 인기 만화가 마스다 미리의 원작을 영화로 옮긴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고아로 수녀원에서 자란 소녀 이다가 이모와 함께 숨겨진 가족사를 찾아가는 과정을 흑백 화면으로 그려낸 '이다'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문제 청소년을 단기 위탁하는 보호기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숫집 12', 천방지축 가족의 유쾌한 휴가기를 그린 영국 영화 '해피 홀리데이' 등이 상영된다. 세계 최초의 페미니스트 정당 'F!'를 창당하기까지 10년의 여정을 그린 스웨덴 다큐 '페미니스트 창단 도



임흥순 감독

사자상을 수상한 '위로공단'의 임흥순 감독과 '몽테뉴와 함께 춤을'로 EIDF 다큐멘터리 정신상을 수상한 이은지 감독이 관객과 만난다.

또 허인중이 빠져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거짓말'의 주연배우 김꽃비도 관객과 대화에 참여한다. 영화 '질투는 나의 힘'에서 아역으로 데뷔한 그녀는 2009년 영화 '동파리'로 대중상과 청룡상 신인여우상을 수상한 독립영화계 스타 배우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감독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5·18 이야기를 다룬 양주연 감독의 '육상자국'과 전세값 때문에 격정인 서민들의 애환을 다룬 김래원 감독의 '이사'가 상영된다.

전편 무료로 상영되며 홈페이지(cafe.daum.net/wffig)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관객 카페와 유아를 동반한 관객을 위한 놀이방도 운영된다. 문의 062-515-656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천경자 유족 "미인도 위작 시비로 고인 명예훼손 말라" 성명

천경자 화백의 유족들이 '미인도'를 둘러싼 '진위' 논란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터이상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천 화백의 장녀 이혜선 씨를 제외한 장남 이남훈 등 유족과 이들의 법률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9일 '미인도 위작시비로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이며 정협회 소속 정보 평가가 하위 사실을 유포하

며 고인이 된 천 화백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는데 대해 한도가 지나쳤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인사는 위조했다는 사람의 양심선언, 그를 심문했던 전 검사의 증언이 나왔는데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작가를 짓밟고자 나서고 있으니 유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실 규명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은 "정씨의 발언이 천 화백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기에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에 해

당될 수 있어 유족들이 차후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앞서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이었던 정준모 씨는 "미인도는 최소한 위작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인도 진위 규명작업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진행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연향뉴스

한국 광복 70주년, 중국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문화 행사

광주 김미숙하나무용단 한국 문화사절단 참여

15~26일 상하이·항저우 등 공연

'한국과 중국 청년들, 문화로 하나 되다.'

한국 광복 70주년, 중국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 행사가 오는 15~26일까지 중국 원저우, 상하이, 항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린다.

주상하이 한국문화원 원저우·항저우 시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저우 기념관 등이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사물놀이, 비보이, 국기원, 한국무용 등 40명으로 문화 사절단을 꾸렸다.

특히 이번 사절단 일원으로 광주의 김미숙하나무용단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제16회 전국무용제에서 '회.소'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미숙하나무용단은 이번 문화 교류 행사에서 나라의 평안을 기리는 태평성대를 비롯해 부채춤, 강강술래, 입춤 등을 선보이며 무용단의

역량을 담은 창작 무용 '비상'으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번 공연에는 김미숙 예술감독을 비롯해 안무자 이현주, 기획자 김현우, 무용단원 김정미·정미리·박신영·김소희·김지연씨 등이 참여한다.

무용단은 17일 한복·한식·장신구 전시, 한국문화 강좌, 떡·김치시연 및 시식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원저우시 '한국의 날' 행사에 참여해 500석 규모의 원저우대극원콘서트홀에서 공연한다.

18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한중일문화교류 포럼에 참여해 공연을 선보이며 주 상하이 총영사관과 문화원이 주최하는 '한중 우호의 밤' 공연(19일), 공상외국어학교 공연(20일) 무대에 선다. 이어 항저우 '한국 청년우호의 밤'(24일), 상하이 '한중문화포럼'(25일)에도 참석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국극단 노조 "경력 위조 예술감독 사퇴하라"

고소·징계위 회부 등 갈등 증폭...12~13일 예정대로 '홍보가' 공연

허위 이력 논란을 둘러싼 예술감독 사퇴 문제로 내용을 겪고 있는 광주시립국극단 문제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조 전국 공공운수노조 광주시립예술단지부와 국극단 일부 단원들은 9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극단 예술감독이 허위 이력에 경력까지 위조했다"며 다시 한번 사퇴를 촉구했다. 또 광주시 측에는 예술감독·지휘자 선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선임된 김영옥 예술감독은 임용 초기 여수시립국극단 단무장 경력을 예술감독으로 위조했다는 의견이 제기돼 일부 단원들이 퇴진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 예술감독은 허위 이력과 선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에게 자존심을 짓밟는 막말은 물론 고소까지 하는 등 극단의 갈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예정된 정기 공연에는 성실히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 김 감독은 지난 9월 기자

회견을 열고 "여수시의 행정체계 재편과 조례제정 과정에서 직위명이 단무장 이였을 뿐 재임 내내 예술감독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은 더 증폭돼 최근에는 김 감독이 단원 6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고 기획 단원 A씨가 폭행을 당했다며 단원 B씨를 행사 고소하는 등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광주문화회관측은 정기 공연이 끝난 후 업무방해죄로 고소된 6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으로 있어 정기 공연 후 국극단 문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립국극단은 12~13일 오후 7시30분 광주주요문화회관에서 창극 '홍보가'를 공연한다.

전 국립창극단 상임연출가를 역임한 정갑순씨가 연출과 대본, 이난초 명창이 작창과 도창을 맡았다. 음악감독으로는 원장현 명인이 참여한다. 티켓 가격 2만원,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526-036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질권대출, NPL매입,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무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정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삼화/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 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 기업입니다.

부동산 중개 및 부동산 경매, NPL 업무에 관심있거나 참여하실분 선정 모집합니다.

NPL매입, 중개, 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 대출 지원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수호 부동산중개법인

사업자등록번호 464-88-00084 / 법인등록번호 200114-0058676